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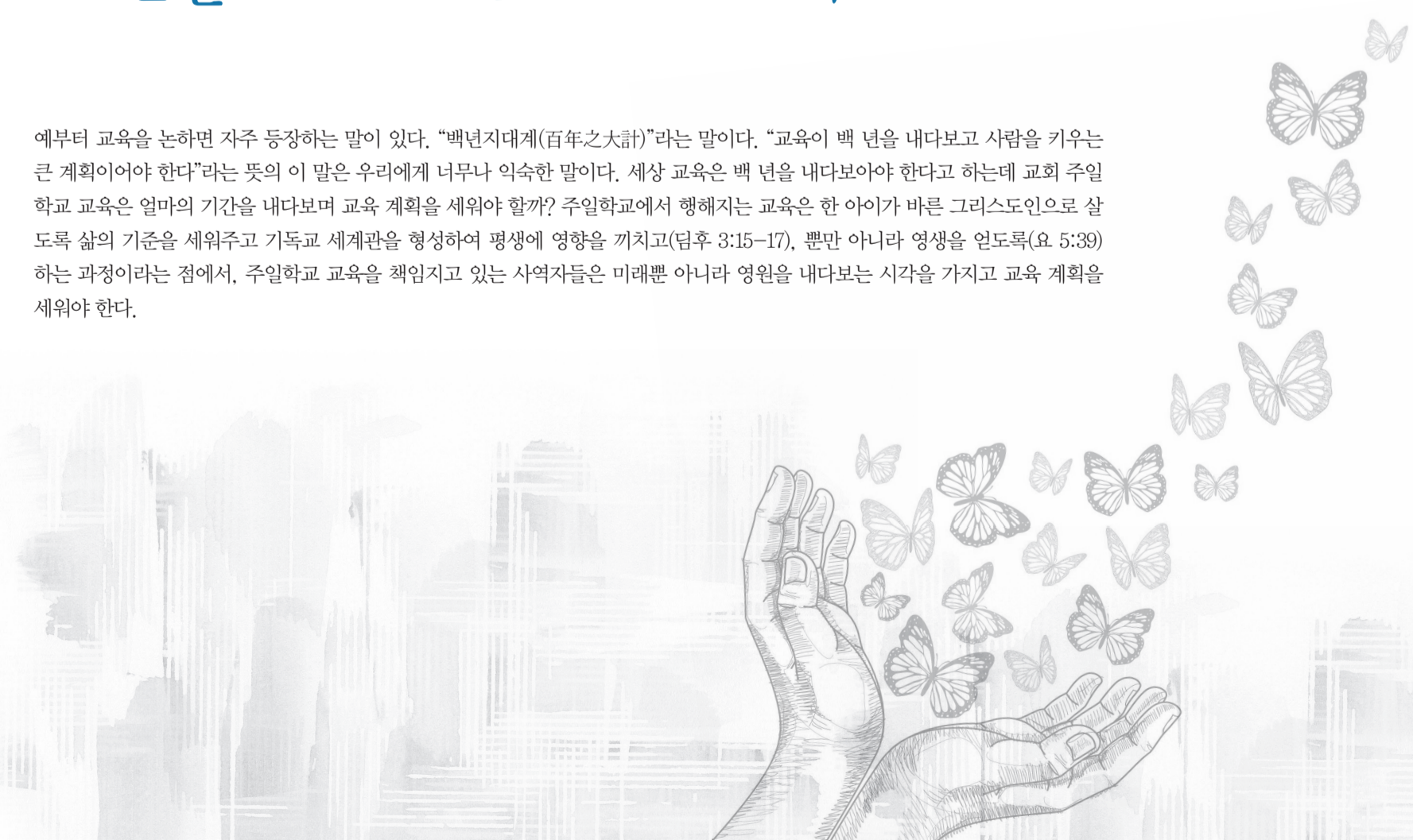
■ 기획 특집 ■ 파이디온 칼럼 ■ 사역 돋보기 ■ 국내 성지 순례
■ 파이디온 지부 이야기 ■ 사역 후기_어린이·청소년 캠프 ■ 책 이야기 ■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

기획 특집

미리 세우는 2015년, 주일학교 **연간 교육 계획** 세우기

영원을 내다보는 교회 교육

예부터 교육을 논하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다. “교육이 백 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키우는 큰 계획이어야 한다”라는 뜻의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다. 세상 교육은 백 년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 주일 학교 교육은 얼마의 기간을 내다보며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할까? 주일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한 아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삶의 기준을 세워주고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여 평생에 영향을 끼치고(딤후 3:15-17),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요 5:39)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은 미래뿐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는 시각을 가지고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일학교 교육 계획 세우기

한 아이의 영원을 내다보는 주일학교 교육을 생각한다면 신년 교육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주일학교 운영의 키 또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잘 만들어진 교육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꼭 생각해봐야 할 요소들을 나누려고 한다. 이 요소들은 교육 계획이 잘 세워졌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1. 기독교 교육(또는 교회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는 교육 계획

주일학교 교육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요소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표현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인간에게 있는 '왜곡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과 구조를 회복하여 작은 예수를 세우는 것'으로 정의 하겠다.

하나님 형상의 구조의 회복은 인간의 구조적 영역인 육체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구조에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된다. 또한 하나님 형상의 기능적 회복은 네 가지 관계에서의 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닮아 자라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 청지기로서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양승현, 2009).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교육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도 세우고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선택하며 틀을 잡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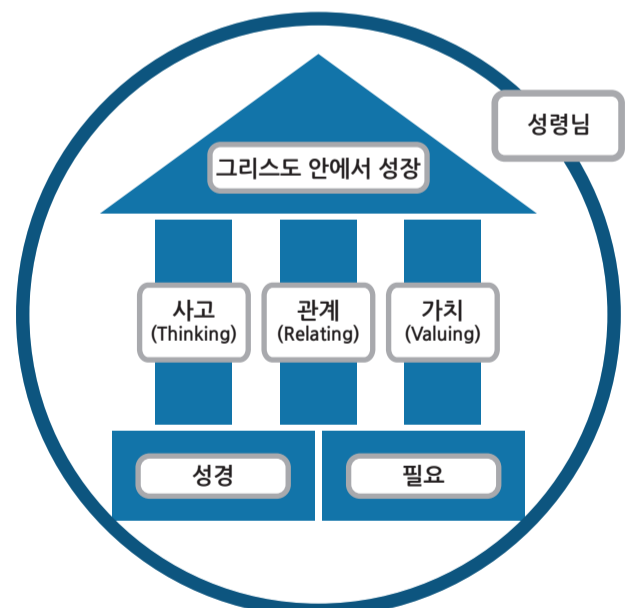
2. 주일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역의 모든 영역을 고려한 교육 계획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한 개인의 전인적 발달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지적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서 언급한 모든 영역들과 관계들에서 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여섯 개의 영역들과 네 개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를 생각하며 교육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역을 고려한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서 교사들의 교육, 부모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가정과 학교까지도 사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교육 계획을 세움으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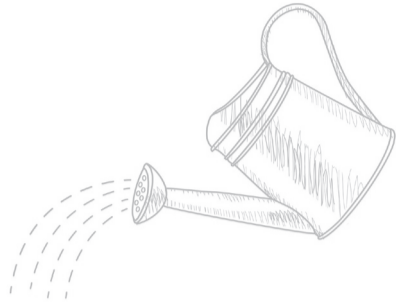
3. 교육 내용들이 균형 있게 드러나는 교육 계획

교육의 모든 요소들이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 균형 있게 드러나야 한다. 기독교 교육학자 얀트(Yount)는 가르침의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교육심리학과 연결하여 다음의 도표로 요약했다.



제자 만드는 모델(Disciplers' Model)
(Yount, 2010, p. 6)

도표 안에 일곱 가지의 요소가 있다. 기초적 역할을 하는 성경은 교육의 내용이고, 필요는 아이들의 개인적 필요를 말한다. 세 개의 기둥은 가르침 안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돕고, 개인적이 삶의 가치와 태도를 드러내도록 돕는 가르침을 뜻한다. 그러한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날 때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서 성장한다.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Yount, 2010).

성경을 가르치되 사람의 필요를 인식해야 하고 그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교육 계획이 되어야 한다. 교육 계획에 이 요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성경만 강조한다면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교육 계획을 만들 때 이 요소들을 고려하며 가르침의 과정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드러나는 교육 계획을 만든다면 좋은 교육 계획안이 될 것이다.

4. 세부 계획들이 목적 및 목표를 이루어가는 역동성을 일으키는 교육 계획

교육 계획안에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선교, 봉사, 행정, 특별 프로그램 등 여러 항목과 관련된 일련의 교육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이 목적과 목표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통일감을 주고 한 방향으로 정렬되게 해주어야 한다. 각각의 내용이 다양하지만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역동적 상승 작용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5.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가진 교육 계획

영적 성장을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양트는 평가 방법으로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적인 행동이나 태도(갈 5:19-21)를 벗어나고 경건함과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많이 보이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제안하기도 한다(Yount, 2010).

영적 성장을 평가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장이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가능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 잘 정의된 개념들,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하는 목표들을 세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계획 및 진행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뿐 아니라 아이들 개인의 진보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 계획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며 명확하게 하여 교육 계획의 목표를 성취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파이디온 칼럼

투쟁하는 교육전도사

‘투쟁’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전도사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쟁하십시오!

투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투쟁과 부여된 동기의 실천을 이루는 것이 투쟁입니다. 동기부여가 외부에서 오고 실천을 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투쟁입니다. 하지만 사역은 동기부여를 위한 자신을 향한 투쟁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세우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고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그 자세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투쟁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지성을 갖추고, 방해하는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바른 성품을 세우는 것은 노력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투쟁입니다.

두 번째, 바른 사역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옳은 생각을 가졌다고 반드시 옳은 결과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높는데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역을 하는 이유와 목표도 모른다면 사역의 열매는 없습니다. 동기가 옳은지, 과정은 적당한지, 목표가 분명하고 필요한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정리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모르면 선배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자신을 겸손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투쟁입니다.

세 번째, 방해 장벽과 투쟁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 해시켜야 하고, 부모를 설득해야 합니다. 교사들과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포기하려는 마음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회피하고 핑계하려는 비겁함도 생깁니다.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투쟁입니다.

언제나 옳은 일은 투쟁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전도사의 사역은 투쟁을 통해 완성됩니다.

고종율 목사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6.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 계획

사역 대상인 아이들에 대한 이해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교육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내용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들의 교육 내용이나 강조점은 유치부의 그것과는 당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이에 꼭 성취하고 습득해야 할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교사들도 알아야 하고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그 또래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들이나 발달 이슈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7. 개 교회의 특성과 방향성을 고려한 교육 계획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 해의 교회 목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녹여내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다르고 그 교회만이 갖게 되는 조직 문화와 강조점이 다르므로 함께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점에서 교육 계획에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교회 일정 및 절기 행사들, 프로그램과 조화된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교사들과 아이들의 구성이 어떤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사용하게 될 장소나 시간은 어떤지, 추가 인적 자원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 개 교회의 특성과 환경들이 이러한 부분이 고려될 때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며 계획을 실행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8. 부서의 부장단 및 교사들과 공유된 교육 계획

교육 계획이 성공적으로 세워지고 실행되며 그 목표를 성취하려면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그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게 공유되고 공감되어야 한다. 부서 운영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부장단과 교사들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해 사역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역을 실행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부장단 및 교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다면 더욱 단단하고 실천 가능한 교육 계획이 될 수 있다.

9. 실행 가능한 교육 계획

교육 계획을 비유한다면 배의 키나 평형수에 비유하고 싶다. 주일학교 부서 운영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방향을 벗어났을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점에서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치 배가 기울 때 그 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평형수처럼, 부서 운영이 기우뚱거릴 때 원래 부서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평형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 계획은 교회에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막연하거나 애매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계획되고 준비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수정이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역의 진행 방향 및 과정에 큰 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 계획을 세워 사역의 일관성과 안정감을 주는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

10. 미리 준비되고 고민한 교육 계획

교육 계획을 세우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일반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시기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 계획을 세우게 되면 형식적이거나 타성에 젖은 교육 계획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늦어도 10월부터는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모임들을 시작해보자. 먼저 개 교회에 교육 목사나 교육 디렉터가 있다면 교육부 사역자들과의 모임을 통해 교회의 신년 목회적 목표와 방향성 및 강조점들을 공유한다. 교육부 사역자들의 모임에서 개략적인 부서의 목표들을 미리 제시하고 서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교육부 안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 부서에서는 매월 월례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부서 교육을 평가한 자료들을 축적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모든 자료와 내년도의 부서의 변화들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되고 깊이 생각하고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럴 때 그 교육 계획이 부서를 안내하는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일학교 교육 계획, 그 목표들을 시행하는 과정 미리 보기

존슨(2001)은 계획이란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함으로 그 목표들을 시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교육 계획은 우리에게 그 목표들을 시행하는 과정들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해의 주일학교 교육을 다 보여주는 청사진답게 구체적이며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2015년에는 앞에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행 과정을 볼 수 있는 탁월한 교육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부서를 믿음 공동체로 세우고, 섬기는 아이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는 주일학교 교육을 기대한다.



서은선 전도사

• 세대로교회 교육디렉터
• 탈북신학대학원(Ed.D, 교육학)



참고 문헌

양승현. (2009). *크리스천 다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Johnson, L. (2001). Plan, Planning. In M. J. Anthony (Ed.), *Baker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p. 542).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Yount, R. (2010). *Created to Learn: A Christian Teacher's Introduction to Educational Psychology*.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리더십 특성 프로파일

DOL

강사 훈련 세미나

다양한 리더십, 다양한 영향력

DOL(Dimensions of Leadership)은 다양한 리더십 유형 분석을 통해 역동적인 사역 현장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습득하게 합니다.

대상 4년제 대학 과정을 졸업한 사역자, 교사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AM 9:30~PM 6:00

장소 주은혜교회
(홍문군 목사 사무/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1313번지 반포프라자 314호)

내용 DOL(리더십 특성 프로파일: 다양한 리더십 유형과 특성 이해 및 개발 과정)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www.paidion.org, 현장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등록비 20만 원(강사 매뉴얼, 강사 자격증, 강의용 자료 CD, 중식 포함)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부모-십대 자녀 30일 대화 세미나

사역자, 교사 과정

청소년 도서 「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디모데)」를 교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30일 동안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합니다. 특별히 본 세미나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주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Sync하라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PM 12:30-5:00

장소 미정(홈페이지 참고)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www.paidion.org)

등록비 11월 24일까지 27,000원/ 11월 25일부터 30,000원(「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 도서, 강의안, 활용 자료, 간식 제공)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파йдιον스퀘어와 함께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과 의미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예쁜 과일
맛있는 과일 주셔서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에는
전교인이 함께 감사 제목을 적어
풍성한 감사나무를 만들어보세요.

산타 할아버지만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날 위해 이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행사 기획안/ 설교 자료



음반/ 찬양 자료



영상/ 뮤지컬 자료



현수막/카드/PPT 배경 등 다양한 상품



추천도서

www.paidionsquare.com



어린이 사역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기**

추수감사절은 미국 이주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성경적으로도 토지의 소산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다(신 26:2~10).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지켜온 절기이며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나눔'의 의미로 추수감사주일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이 직접 추수할 수는 없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몇 가지 추수감사주일 특별 순서를 소개한다.

1. 과일 제단 쌓기

부서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일을 따로 준비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직접 과일을 가져오게 할 것을 권한다. '과일 제단'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부서 내에서 주어진 대로 정성을 다해 만들면 된다. 직접 수확한 과일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집에서 준비하여 정성스레 가져오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다. 직접 수확한 것이 아니라서, 혹은 농업사회가 아닌 현대에 맞지 않는다고 좋은 훈련의 경험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드러진 과일 제단의 과일들은 선물용 상자에 예쁘게 담아 어려운 이웃이나 지역 내 수고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다. 어린이들이 직접 쓴 카드를 함께 넣어 전달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감사나무 만들기(감나무, 사과나무)

예배실 벽면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전지 여러 장을 붙여 나무 밑그림을 그려 붙여준다. 그리고 사과, 감 모양의 열매를 프린트하여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 사과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감에는 '한 해 동안 부모님께 감사한 것'을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감사한 것, 교회에서 감사한 것'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

접 작성한 열매를 나무에 붙여 감사 나무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감사의 이유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또한 완성된 감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허락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3. 달란트 기부하기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펼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부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모은 '달란트'를 통해 나눔에 동참시킬 수 있다. 연중 '달란트'를 통한 시상 및 보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부서라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출석, 헌금, 암송, 참여 등의 항목에 대한 단기 보상 제도를 운영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린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쳤다면, 직접 자신이 수확한 달란트를 통해 구제를 실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1달란트에 100원이라 정해놓고, 한 어린이가 10달란트를 기부했다면 부서에서 1,000원을 기부한다. 어린이들은 그동안 자신이 모은 달란트를 기부함으로써 구제에 동참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작은 액수일지라도 이웃을 위한 일에 사용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 게시판 혹은 감사나무에 붙여두면 나눔과 구제라는 신앙 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원희 전도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중
- 수원북부교회 유년부 담당
- 파이디온선교회 vbs팀 강사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다음세대 예배(찬양) 인도자 세미나

학령전



어린 아이일수록 아이들에게 맞는 인도 방법과 찬양곡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사와 음률 그리고 재미있는 율동으로 아이들의 찬양 시간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차수	지역	장소	일시
1	부산	영안교회	10월 18일(토) AM 10:00-PM 4:30
2	제주	탐라교회	10월 20-21일(월, 화) PM 7:00-9:30
3	대구	참좋은교회	10월 25일(토) AM 10:00-PM 4:30

대상 어린이 찬양 인도자 및 사역자(학령전)

내용 예배와 찬양,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의미와 자세), 미취학 아이들의 특성, 찬양 인도 방법(콘티 짜기, 새찬양 배우기 활동, 손유희, 챈트 등), 예배곡 배우기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www.paidion.org)

*1Day 세미나는(부산,대구) 현장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비 1차 10월 4일까지 32,000원/ 10월 13일까지 36,000원/ 10월 14일부터 40,000원

2차 10월 6일까지 24,000원/ 10월 15일까지 27,000원/ 10월 16일부터 30,000원

3차 10월 11일까지 32,000원/ 10월 20일까지 36,000원/ 10월 21일부터 40,000원

(1, 3차는 점심 식사 제공)

문의 권효정(070-4099-7736)

학령기



이땅 다음세대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어린이 찬양 사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가 알아야 할 예배와 찬양의 의미, 그리고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와 준비되고 훈련된 예배 인도자를 세우는 실제적인 예배 인도 방법들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차수	지역	장소	일시
1	부산	영안교회	10월 18일(토) AM 10:00-PM 4:30
2	제주	탐라교회	10월 20-21일(월, 화) PM 7:00-9:30
3	대구	참좋은교회	10월 25일(토) AM 10:00-PM 4:30

대상 어린이 찬양 인도자 및 사역자(학령기)

내용 예배와 찬양,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의미와 자세), 예배인도의 실제(콘티짜기, 멘트법, 진행방법), 예배곡 배우기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www.paidion.org)

*1Day 세미나는(부산,대구) 현장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비 1차 10월 4일까지 32,000원/ 10월 13일까지 36,000원/ 10월 14일부터 40,000원

2차 10월 6일까지 24,000원/ 10월 15일까지 27,000원/ 10월 16일부터 30,000원

3차 10월 11일까지 32,000원/ 10월 20일까지 36,000원/ 10월 21일부터 40,000원

(1, 3차는 점심 식사 제공)

문의 권효정(070-4099-7736)

www.worldteach.co.kr ☎02-2652-0919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사용,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인정받은 말씀 사역 기관인

디모데성경연구원 10, 11, 12월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 훈련

훈련스런고
이뤄졌던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구약의 파노라마는 모두 154개(구약 각 77개)의 모션(움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 사이사이에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시각 자료(구약 : 110여 개)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배우게 된다

구약 날짜 2014년 10월 27일(월)~29일(수)

장소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등록 30만 원(선착순 40명)

* 강사 패키지 포함(숙식제공, 학생용 교재, 인도자 지침서, 강의 실황 mp3, 강의 동영상, 강의용 PPT)

*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 교육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세미나 등록을 하신 후 5만원을 선입금해야 세미나 등록이 완료됩니다.

* 디모데성경연구원의 각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세미나의 강사 자격을 원하시는 경우 수강 후 강사 패키지(인도자 지침서, 강의 실황 mp3, PPT)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해당 세미나의 업데이트 자료와 세미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60도 리더

조직의 최고 리더로서 중간 리더들을 이끄는 것과 조직의 중간 리더로서 최고 리더를 도우며 따르는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 일시 2014년 10월 6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가르치는 이가 가져야 할 내적인 기초부터 영향을 미치는 활동까지 자세하게 안내한다.

• 일시 2014년 10월 20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선한 청지기의 삶 스투어드십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는 세미나이다.

• 일시 2014년 11월 10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요셉-우회로(가제)

요셉을 낫선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5색 Seminar

1차 삶의 변화의 기적, 아베스의 기도, 포도나무의 비밀, 목적이 이끄는 삶, 영적 성장의 7단계

일시 2014년 12월 8일(월) 장소 목동 지구촌 교회

2차 참 믿음의 5가지 가치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롬 12장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격려, 하나님이 빛이신 성품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장소 목동 지구촌 교회

설명회

20%
강사 패키지 할인

크리스찬 베이직 크리스찬 베이직 플러스

• 일시 2014년 11월 3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구약·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20%
강사 패키지 할인

짧은 시간의 설명회를 통해 구약·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의 특징과 활용법을 배우며 참석자에게 강사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 일시 2014년 10월 13일(월)
2014년 11월 24일(월)
• 장소 목동 지구촌교회

리더십 페스티벌

Festival

평신도와 교사, 당회, 안수집사회, 제직의 훈련 과정으로 샘플 강의를 수강하여 강사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이다.

• 일시 2014년 12월 1일(월)~3일(수)
• 장소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청소년 사역 가정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준비하기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역자들은 어떤 행사를 꾸밀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은다. 발표회 축제, 레크리에이션 행사, 친구초청 전도 축제 등 다양한 기획과 의도로 멋진 성탄절을 연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청소년들에게 성탄절의 내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청소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이 '가정을 축복하는 성탄 새벽송'이다. 특별히 각 가정의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해보았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리차드 로스 교수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까지도 제안했다. 특히 비기독교인 부모와의 접촉을 위해 성탄 프로그램에 예산을 집중시켰다.

먼저, 12월이 되면 부서 차원의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한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미리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선물(롤케이크)과 카드를 전달하는 행사를 한다고 공지했다. 청소년 부서에 출석하는 청소년의 40퍼센트 이상이 불신 가정이었기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사항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거의 모든 청소년과 가정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그중에는 종교가 다른 부모님도 있었지만 선뜻 허락해주는 것을 보고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

크리스마스이브가 되면 앞서 준비한 찬양축제 행사를 마치고 교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저녁식사 후(8~9시) 각 지역별로 흩어질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는 교역자, 교사, 부모가 함께하도록 하였다. 출발하기 직전 기도 모임과 함께 찬송을 미리 연습한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주의 사항도 알려준다. 특히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밖에서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도록 지도했다.

한 가정씩 방문할 때마다 그 가정의 부모님과 청소년 자녀가 나와 성탄의 축

복을 나누었다. 부모님이 출타하셨거나 나오지 못한 가정은 청소년이 가정의 대표가 되어 모두의 축복을 받았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들은 방문이 끝난 후 합류하여 함께 움직였기에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 덕분에 잘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선후배, 새 친구들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부모님과의 교류이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부모님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비기독교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중에 '새벽송'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어릴 적 고향 교회에서 새벽송을 경험한 것이다. 한 부모님은 새벽송을 계기로 새해에 교회를 등록하고 출석하기까지 했다.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뜻밖의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장기 결석자 청소년의 집 근처를 지날 때가 있다. 우리 부서의 경우, 여분의 선물을 준비해놓았기에 전화를 하고 방문하여 장기 결석자까지 심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늦은 저녁부터 시작된 모임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각 팀 별로 끝나기 시작했다.

청소년 사역은 '타이밍 사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잊혀져가는 성탄의 문화를 창의적이며 색다르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청소년 사역에 가정 사역을 더하여 교회와 가정이 다음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청소년 사역의 부흥은 다시 경험될 것이다.

이재욱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청소년사역 팀 강사



파이디온 선교단 신입 단원 모집

문화라는 이름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 전하는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단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어린이들은 찬양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음세대 문화 선교사로 자라날 것입니다.

선교단 활동

훈련 내용 영상/ 찬양/ 율동, 워십 훈련
활동 내용 파이디온 강습회 사역, 음반 및 영상 도구 개발 참여
훈련 시간 매주 수요일 pm 3:30-6:30

지원

원서 배부 2014년 10월 1일(수)부터
지원 자격 2015년에 초등학교 1~5학년 되는 어린이
서류 지원 파이디온 홈페이지(www.paidion.org)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2014년 12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주세요.
1) 온라인 접수: paidionccm@paidion.org
2) 우편 접수: 137-84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25(방배동 882-33) 세일빌딩 2층 파이디온선교회 문화사역 팀

오디션

일정 2014년 12월 19일(금) 접수 인원에 따라 시간을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내용 ① 가창 ▶ [지정곡] 1-2학년 모두가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 손잡고) 음반 수록곡
3-5학년 따르겠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 음반 수록곡
[자유곡] 동요 1곡(교과서곡 제외)
② 안무 ▶ 파이디온 율동 동작 1곡, 안무 수업

장소 파이디온선교회 디모데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25(방배동 882-33) 세일빌딩 2층]

접수비 1만 원(오디션 장소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희영 간사(070-4099-7715)



국내 성지 순례

믿음과 능력의 발자취를 따라

2014년 파이디온 여름 직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믿음과 능력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주제를 품고 이땅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보았습니다.



영광 아일교회와 기독교 순교기념관

1950년 6·25가 끝나고 수복될 때, 기독교인들이 국군과 UN군을 환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산군 잔당에 의해 교회가 불타고, 교인 전원이 순교당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생매장됨. 기독교 순교기념관은 2006년 건립되었고 역사 전시실과 순교자들의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음.

일정:
 정읍 두암교회 ▶
 영광 아일교회 ▶ 증도
 증동리교회,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 ▶
 여수 애양원

정읍 두암교회와 순교기념탑

1950년 6·25 한국전쟁 직후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창과 칼에 윤임례 집사 외 23명이 순교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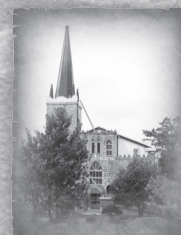
두암교회 앞에서 파이디온선교회와 도서출판 디모데

증도 증동리교회,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과 순교지

문준경(1891-1950): 증도와 주위의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함. 신안 일대에 100여 곳의 교회를 세움. 일제강점기 시절 갖은 고문을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1950년 공산군에 의해 교회 앞 바닷가에서 순교당함.

여수 애양원, 손양원목사 순교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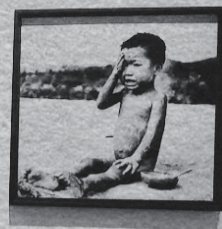
손양원(1902-1950): 신학교 졸업 후 나병 요양원인 애양원에서 봉사하였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은 일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 6·25 당시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Yawoll-Ri never again!



먼저 이번 수련회를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의 기행문을 부탁받았을 때 가볍게 생각했던 마음이 많은 부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와 '십자가'에 익숙해져버렸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겨자씨만큼도 닮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없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독교인답게 살라'라고 질책받는 이때, 어떠한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삶'인지 많은 해답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내게 예수의 이름이 소중한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구한말부터 6·25 사변 때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예수 믿으라!'라고 외치던 그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토록 소중한는지...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 간절히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 기독교에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피값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 분들의 삶은 분명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고, 감옥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믿음' 때문에 죽음마저도 감내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담담히 십자가를 진 이 나라 민초들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닮은 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한 여인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눈물의 기도가 언제부터 끊어졌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의 모습은 커지고 화려해졌지만 믿음의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부른 찬송과 성경 말씀이 읽혀지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불과 60년 만에 사라져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전과 다른 기독교의 쇠퇴를 걱정합니다. 교회 깃발만 꽃혀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들던 때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조차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예수'를 붙잡았

에 하나님이 그 약하다 약한 이들을 크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용기와,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과 용서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어려운 이를 풀어주는 파스함과, 굳건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 신앙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음세대에게 전달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신앙의 모습이 다시금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발전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 진정한 '말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신앙의 유산들이 사라져갑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던, 예수의 제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과 지금의 길이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찬양을 부르며 담대하게 외롭고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은 사진으로만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보았던 믿음의 땅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 타협이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되기를,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대한민국 남쪽 끝까지 가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고, 파이프디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에도 그곳의 풍경들이 기억납니다. 바다의 품과 생명의 소리, 잠잠한 고요 속에서 잠시 사색을 즐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차중원 간사
• 도서출판 디모데 서고운영 팀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
심자기조각공원 종합



문중경 전도사의
성경책과 양첩

1894년 언더우드 찬송가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
맞잡은 손



당신들이 뿌린 순교 피로 - 고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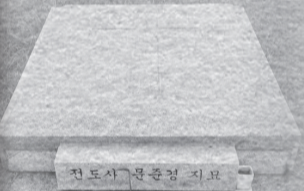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 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 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6.25 동란의 광풍
형제심장에 총을 쏘고 칼로 찢려
피투성이로 쓰러지는 이 한반도를 가슴에 안고
하늘 향하는 믿음 하나로
논도 밭도 강도 바다도
마음도 예배당도 하늘도 땅도 남김없이 불타는 것 보며
더러는 돌에 매달려 바다에 생수장되고
더러는 묶이여 웅덩이에 생매장당한
야월교회 65명 전교인 순자들이여
그렇게 심장이 터져버린
실로 너무도 가혹하고 끔찍한
그러나
그날 당신들 침묵의 절규로 드린
거룩한 봉헌의 제물이여
저기 갯바람 소리 서해파도 소리로
그 고통 지금 여기 들리고

오늘은
당신이 뿌린 피 제단에서
우리 같은 영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 복을 추수합니다



문중경 전도사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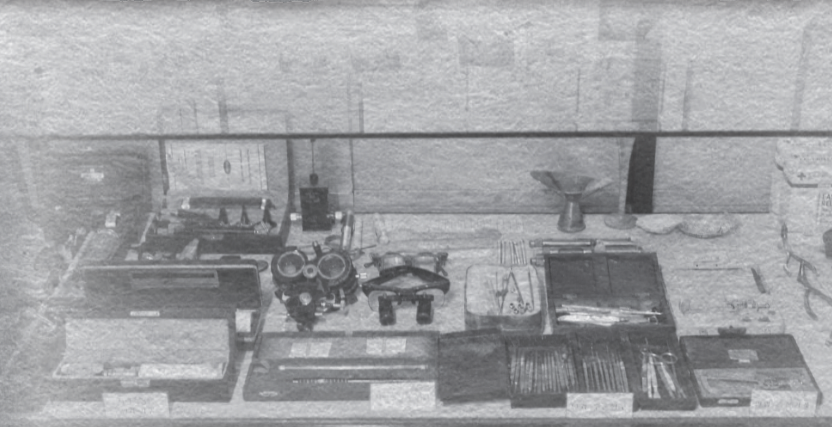


손양원목사 순교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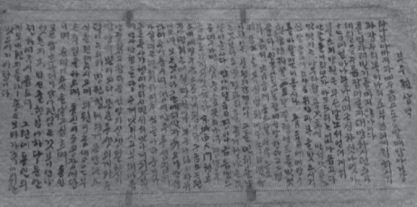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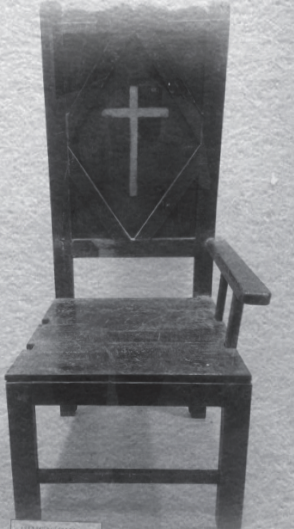
문중경 전도사가 사용한 교회 종

손양원 목사님이
이해지, 아들과 주고받은 특급 편지



한센병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기구들

손양원목사님이 쓰던
강대상 의자



파이디온 지부 이야기

파이디온선교회 대전 지부를 소개합니다

파이디온선교회 대전 지부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 성경학교 및 겨울 성경학교 강습회 진행으로 섬깁니다.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의 경우 대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합니다. 이들과 함께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를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찬양 강의, 전체 주제에 대한 주제 강의, 소그룹 성경공부 활동을 위한 공과 강의를 들으며, 개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사역에 대전 지부가 함께 섬깁니다.

두 번째, 교사들과 어린이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선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세미나를 대전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디온선교회 대전 지부에서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한 반목회 과정과 예배 인도자 세미나, 그리고 저학년 어린이(7-9세)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꿈마루', 디모데 제자훈련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들과 알찬 세미나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침신대학원 지부를 돕는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원에서 매 학기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사역을 서로 돕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많은 교사와 사역자가 '크리스천 티칭', '반목회', '한눈에 보는 성경'을 공부하며 다음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아 그 고민들을 해결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전도사들과 작은 교회의 교사들이 다음세대 설교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다음세대 설교'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배우기로 했습니다. 설교 구성의 첫 단계부터, 의견 나누기, 실습까지 한 학기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실제적인 다음세대 설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도'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다음세대 설교'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의 많은 다음세대 사역자에게 설교의 이해와 폭을 넓게 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교회와 다음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대전 지역 많은 교회학교 교사를 찾아가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며 친목을 나누고, 개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지혜를 모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선교회 대전 지부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꼭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동역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민재 전도사

- 침례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
- 한우리교회 교육부 디렉터
- 파이디온선교회 대전 지부 총무



picok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 **피콕**

www.picok.co.kr
TEL: 070.8683.3301

피콕 > 피콕 설교콘텐츠 중

한 별의 메시지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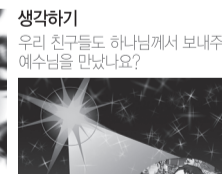
도입과 전개
오늘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 볼 거예요



성경본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발견했어요



생각하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해뿔은 자신이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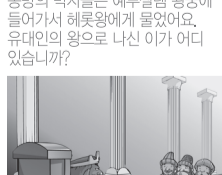
적용하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카드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운데 꼭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예요



결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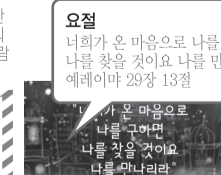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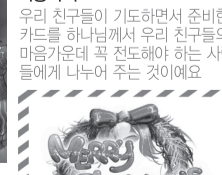
큰 별이 어떻게 동방박사와 목동들을 이끌었는지 잘 들어보아요



큰 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별로써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큰 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별로써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사역 후기

2014 어린이 캠프 참석 후기

매년 열리는 파이디온 어린이 캠프는 미자립 교회의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해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주최하고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이다. 파이디온 학부 동아리의 일원인 나에게도 어린이 캠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를 통해 신앙적인 면과 개인적인 측면 모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일정에 앞서 캠프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동아리 부원들이 한곳에 모인 날이었다. 당시에는 동아리의 부원으로서 단순히 캠프를 경험해보자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캠프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주제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을 꼬집어주셨고, 캠프를 다소 가볍게 여겼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로 세울 아이들, 그러나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캠프는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캠프에 참가하기로 확정된 아이들의 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 100명.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공과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라는 캠프 주제를 기반으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라는 공과별 설교를 듣고 각 교회 교사들과 공과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맡으신 목사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교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질문에 큰소리로 대답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찬양과 율동 시간에는 조그만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투르지만 열심히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

주어서 게임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의 행사가 얼마나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활동이 재미있다는 말 한 마디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행사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로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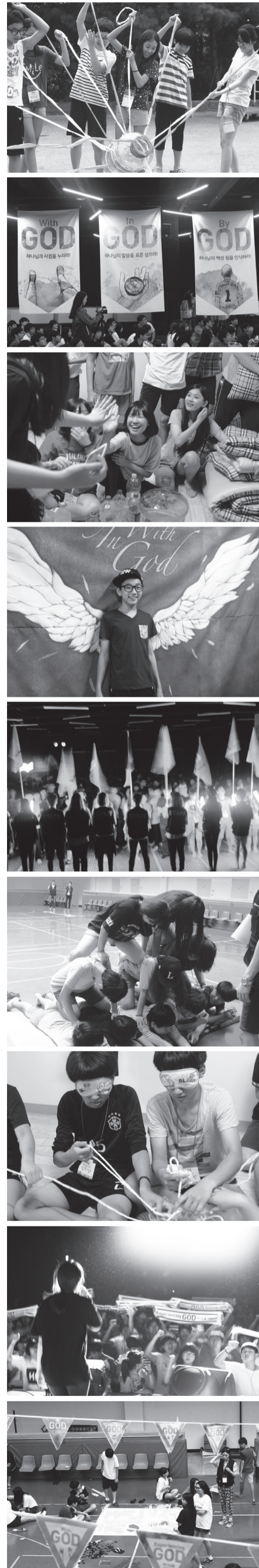
둘째 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물놀이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폭우가 찾아왔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고, 도저히 물놀이는 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아이들을 강당으로 모아 영상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거센 소나기가 그치지 내내 밝은 표정이던 한 아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비 그치게 해주시라고 엄청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어요!” 아이 얼굴에 환하게 퍼지던 미소를 보자 예수님이 왜 우리가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들의 모습을 조그만 목각인형에 알록달록 예쁘게 꾸몄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캠프를 준비하는 것부터 정리하기까지의 긴 여정이 끝났다. 돌이켜보면 이 캠프를 통해 내가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잊지 않고 나 자신도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파이디온 캠프뿐 아니라 각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변화된 많은 어린이들이 가슴에 사랑을 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한다.

장예원

•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1학년
• 파이디온선교회 총신대학 지부



후기 1

2014년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는 매우 분명한 주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캠프의 목적에 회의의 시선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가진 상식의 범위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형적인 일례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모태신앙이라는 크나큰 축복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 반발심만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하는 것이 싫었고 기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와 같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청소년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이러한 회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 넓은 강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열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눈을 반짝이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때보다 집중할 때, 친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

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온몸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에 속한 한 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교회를 다닌 지 몇 주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째 날 예배 시간의 모습은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옆에서 함께하기를 권해도 미소한 번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가 지난 둘째 날 그 아이는 저와 상담자 선생님에게 "캠프 동안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라고 결단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기도 시간, 그 아이는 전날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그 아이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두 문장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 내가 제한했던 상식을 뛰어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가시적

인 형상은 아니었지만, 그것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시간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말과 글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넘치도록 받은 은혜는 아직도 제 삶 속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감히 부인할 수가 없으니 하루하루 더 조심하게 되고 그분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1, 2차 캠프를 함께한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아이들이 캠프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인수

•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1학년
• 파이디온선교회 충신대학 지부

후기 2

청소년 캠프 2차를 섬기기로 한 내가 서경 청소년 수련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1차 캠프의 마지막 날 집회가 한창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강당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청난 열기가 나를 압도해왔다. 이 뜨거움은 단지 여름날의 더운 날씨 때문도 아니었고, 강당 안에 밀집된 많은 인원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아이들의 타오르는 열정이 그곳에 모인 사람을 넘고 넘어 대강당 곳곳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현상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 내가 스태프로 섬길 장소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고, 그곳에서 첫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될 2차 캠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만나주세요.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 흐른 뒤 이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두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첫 번째 감사는 '아이들의 변화'였다. 내가 맡은 조는 캠프에 처음 온 아이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집에 가려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 아이들은

보면서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된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관심조차 없었던 교회와 성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 내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고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졌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다. 앞으로 기나긴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늘 그들을 응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성숙해질 모습을 상상하며 나도 모르게 감사와 행복의 미소가 지어졌다. 두 번째 감사는 말씀을 통한 '내 마음의 변화'였다. 이번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였다. 나는 캠프에 참석할 시기에 진로 문제로 한창 고민하고 있었다. 그 고민의 한편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세상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 저녁 집회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이 말씀은 단지

그곳에 모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었고,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 세상의 기준에 얽매어 찢찢매고 있던 김나현,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정체성을 찾으라고 말씀해주셨다.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기도드렸다. 짧은 시간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들을 느낄 수 있음에 이번 캠프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캠프장에 도착해서 강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느꼈던 처음 그 열기는 여전히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 앞으로도 그 열기와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났던 2014년 여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김나현

•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학년
• 파이디온선교회 충신대학 지부



책 이야기

약함이 길이다



제임스 패커
144쪽 | 도서출판 디도데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린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You are my all in all)'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이라는 찬양 사역자에 의해 발표된 곡으로 한국교회에 소개된 이래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과 환경, 문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때, 이 한 곡의 찬양으로 잃었던 힘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아무도 없는 교회 기도실에서 마음껏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 기도실을 나왔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9, 10)라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도서출판 디도데에서 지난 8월, 사도 바울이 말한 '약함'을 다룬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주의계의 지성 J. I. 패커 목사의 「약함이 길이다(Weakness Is the Way)」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패커 목사는 어린 시절의 교통사고

와 노년의 노화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 육체적, 인지적, 영적 연약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약함'에 대해 바울의 삶과 그가 보낸 서신을 통해 신학적, 성경적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된 짧은 책에서 그는 네 개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약함이란 무엇인가?"(1장),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2장),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3장),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4장). 저자는 1장에서 '약함'에 대해 정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길은 곧 약함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25쪽). 바울을 약하다고 말하며 대놓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약한 그 때에 곧 강하다고 선포합니다(고후 12:20-13:4, 23쪽). 2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얻기 위해 강한 어조로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스스로를 약한 자로 낮춥니다. 그의 약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사람을 얻기 위한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60쪽).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말하며 가장 어려운 재정적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권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가난하셨고,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의

길을 각오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105쪽). 마지막 4장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며, '소망'을 이루기까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많아 지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소망이 바울을 확실하게 붙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줄 것입니다(142쪽).

책 표지 그림에 있는 '바람에 이는 갈대'가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남는 것은, 그 안에 '강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가사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김대만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대외협력 팀 팀장



책과 함께 성숙해가는 인생의 사계절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책 속에서 만나다.”

누구나 사랑과 격려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시절을 지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성장시켜,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어야 할 청년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듯,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쇠잔해지는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다. 여기 이러한 우리 인생의 각 계절에 맞는 빛깔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있다. 결실과 성찰의 계절에, 이 책들을 통해 자신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보자.

현대 복음주의 지성 J. I. 패커의 진솔한 고백과 묵상
자전적 고통의 경험을 통해 성경적 연약함의 본질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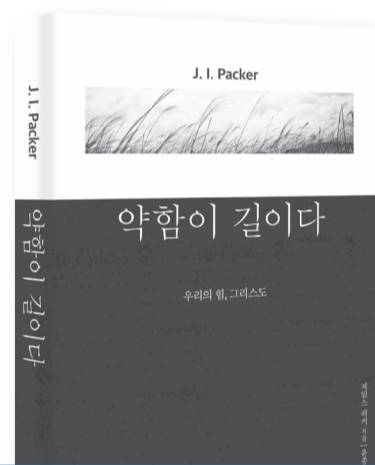
약함이 길이다

우리의 힘, 그리스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 한계와 결핍에 부딪혀 분노하고 좌절한다. 우리 시대 저명한 성경 교사이자 현대 복음주의 형성의 선구자인 제임스 패커 또한 어린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지금은 노화로 인해 쇠잔해지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약함의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던 '연약한 자' 바울의 고린도후서 묵상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또한 참된 힘과 인정, 만족과 기쁨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하여 자유를 누리라고 권면한다.

제임스 패커 윤종석 옮김 | 양장 144쪽 | 12,000원



1분의 기적

웨스 스테포드 지음 | 윤종석 옮김 | 양장 280쪽 | 13,000원



한 아이의 삶을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한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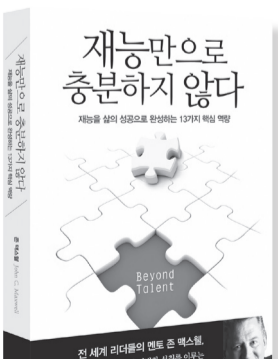
내가 던지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눈길 하나, 한 번의 포옹, 사소한 것에 대한 칭찬, 위로, 응원... 이것이 바로 누구나 매일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한순간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몇 번의 하루가 남았나요? 그리고 몇 번의 기적을 만드시겠어요? 이 책을 읽으며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분명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신애라(배우,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



재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존 맥스웰 지음 | 정성목 옮김 | 346쪽 | 15,000원



재능을 삶의 성공으로
완성하는
13가지 핵심 역량

많은 사람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고, 재능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만의 크고 작은 재능이 있으며, 단지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리더십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나눠 온 전 세계 리더들의 멘토, 존 맥스웰은 재능에 13가지의 핵심 역량을 더할 때 재능을 삶의 성공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극대화하여 삶의 성공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배우라.



태국 불교와 교육을 통한 어린이 사역

태국은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인과 불교를 따로 떼어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불교는 태국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기 7세기경 전래된 불교가 고대 태국인들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태국에는 문자가 없었기에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된 불교경전을 교과서로 사용하여 사원에서 스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더 높은 교육을 받으려면 결국 승려가 되어야만 깊이 있는 학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에 태국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태국 왕국을 세우고 태국 글자를 만든 람캄행 대왕은 평상에 앉아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했고, 공식적인 업무가 없을 때는 승려들과 경전을 토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종교가 왕권의 정통성과 국민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영향력은 19세기 초까지 태국에 영향력을 미쳤고, 현재도 태국의 중요한 교육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불교 사원입니다. 현재도 많은 공립학교가 여전히 사원 부속학교로 존속하고 있으며 스님들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공식적인 학교 조회 시간에 학생들로 불교의 주문(일종의 기도문)인 “수안문”을 외우도록 하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명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불교는 태국인들의 삶과 영혼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교육에 미치는 불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변화를 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릴 적부터 복음적 세계관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밥을 먹을 때 기도라도 하면 그날로부터 교회와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긴 시간을 들여 관계를 만들고 영향력을 만

들어 가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아이와 부모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영어 교육입니다. 영어 교육은 어느 나라나 적용 가능한 교육 방법으로 태국에 역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원이고 교사는 스님이고 교과서는 경전이었던 것을, 교회를 학교로 교역자를 교사로 그리고 교과서는 영어 성경과 ETT 영어 교재로 대체함으로써 복음을 다음세대의 세계관과 삶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역자들이 영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현지인과 한국인 사역자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영어 티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교육 방법은 현재 2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달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점에서 영어 교육은 어느 나라에서나 효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영어 방과후 학교로 인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던 주일학교가 20여 명으로 확장되었고, 치앙라이의 한 사역자는 본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에 교사로 들어가 어린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년 차에 이르면서 파이디온선교회의 번역된 성경학교 교재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말과 주일에도 파이디온 교재로 영적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과 더불어 파이디온 교재를 이용한 성경학교와 제자훈련으로 태국의 다음세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의 다음세대에게 복음이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민윤기 선교사



선교안테나

주일

양영학, 한경신 선교사
MK: 성지, 성애, 성국

사역지: 홍콩 및 X국
사역: 서점 운영, X국 지역 책 보급

1.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늘 선교 사역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3. 성경학교의 안전과 졸업생들의 사역이 열매가 있도록.
4. 선교사 훈련원의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자녀들의 결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종진, 이은숙 선교사
MK: 은혜, 은총

사역지: 태국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주님이 세우신 소수민족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2.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를 통하여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도록.
3. 한때간의 체류 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4. 김 선교사 가정과 양가 어머니의 건강, 특별히 장모님의 뇌졸중이 회복되도록.
5. 큰딸 은혜와(대 3) 은총이(11학년)의 학업의 필요를 위하여.

월요일

이미경, 데일 선교사
MK: 룩, 조이

사역지: 탄자니아

1. 다르살렘 땅에 우물이 파여지길.
2. 학교는 보내는 데 아직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 도도마의 127명의 아이들의 입장을 위해.
3. 센터 사무실이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잘 결정되도록.
4. 싸웨나 스테프들의 영성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5. 양육하고 있는 300여 명의 아이들의 학년 진급과 건강을 위하여.
6. 룩과 조이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지도록.
7. 백삼초 현금 후원자 증가를 위하여.

안드레, 미스바 선교사
MK: 드보라, 아모스

사역지: 국내
사역: 국내 선교 자원 동원과 훈련

1.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선교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2. 고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3. SUFAN(북아프리카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4. 가족과 양가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

화요일

김용준, 이옥경 선교사
MK: 하람, 하진, 이레

사역지: 아르헨티나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저희 부부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2. 건축 중인 이레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건축비와 안전한 공사를 위해.
3. 아르헨티나의 안정과 회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4. 하람, 하진의 대학진학과 이레의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
MK: 야곱, 요셉, 한나

사역지: S국
사역: 교회 개척 및 교육 사업

1. 악한 거짓 영에 사로잡혀 무지하게 살아가는 약 15억의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2. 고난과 핍박이 시작된 이슬람권과 아랍권 안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이름 모를 고난받는 현지 사역자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시도록.
3. 이 시대 무슬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 주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힘들지만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요일

이영민, 김명숙 선교사
MK: 문희, 용호

사역지: 국내
사역: 본부 사역

1. 김명숙 선교사의 건강과 신앙의 회복을 주시도록.
-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뇌경색, 공팔의 기능 저하, 수술했던 눈이 회복 되도록.
- 가장 중요한 당과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2. 아내를 옆에서 제대로 잘 간호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MK: 하영, 하람

사역지: 태국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전도, 훈련

1.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태국과 주변국들의 연례전략회의 주관과 발제를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
2. 지난 8월, 한국 방문 기간 중 10월 ET영어티칭 세미나 준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
3. 10월 ET영어 세미나 태국, 베트남, 일본 사역을 끝까지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4. 하영이의 태국 탐마삿대학 적응과 신앙적으로도 잘 발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목요일

김혜정 선교사

사역지: C국

1. 매주 토요일 A교회에서 15명이 교사 훈련을 받는 데, 이 과정을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사역에 더욱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2. 감사 교육을 통해 각 주일학교 현장과 미래를 바라보며 사역을 통해 헌신된 주일 학교 전임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3. 겸손과 은유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현지인 사역자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4. 지혜롭게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5.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동생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태하, 김혜한 선교사
MK: 은혜, 은선

사역지: 캐나다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 세대 양육

1.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서도록.
2.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쁨부으심을 경험하도록.
3. 은혜, 은선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이심을 알게 되도록.
4. 기도와 재정의 평생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금요일

박종덕, 신유현 선교사
MK: 세하, 주하

사역지: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780여 종족 중 미전도 종족인 220여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2. 깔리만탄에서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멋진 사역 팀을 이루어 자립 교회들을 세워 나가며, 전도처 개척 및 교회 개척 사역, 성도 제자훈련 사역,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3. 나하야(Nahaya)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바바르(Babar)지역, 투마방(Tumabang)지역, 팍마얌(Pakmayam), 따렝(Tereng), 빠위스(Pawis), 마눌(Maur) 지역에 교회, 기도처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5. 홈스쿨을 통해 가르치는 세하, 주하 두 아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6. 함께 동역하게 될 권태운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언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미자 선교사

사역지: 토*
사역: 코**리 족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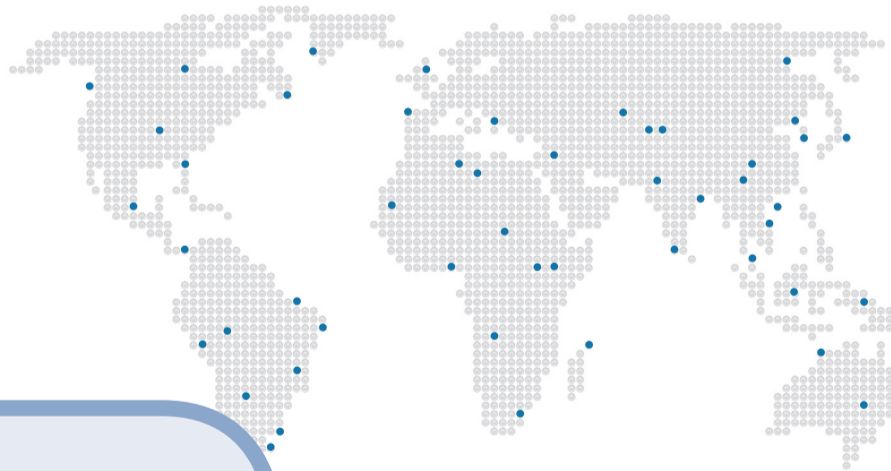
1. 소*데와 아징기리 마을에 어린이클럽과 어린이 잔치에 좀 더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2. 아**트와 그의 동생 아**드의 안구 알레르기가 치료되고 더 아프지 않도록,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3. 연대적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해 말씀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체력적으로 강건하여 시작한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4. 구전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구약에서 예수님까지, 예수 영화와 오디오로 지난 20년 가까이 준비한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5. 화* 형제가 전도한 사람들의 양육 사역, 교회 및 라디오 방송 사역 등 많은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실하고 겸손한 사역자가 되도록.
6. 비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7.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형제들이 이번 일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토요일

정바나바, 이에스터 선교사
MK: 예은, 예광, 예희

사역지: 소아시아(이슬람권)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훈련, 전도

1. 갈라디아 사랑교회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성경 통신자들을 잘 돌보고, 빌립보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후원 헌금

후원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국내·해외 직접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2014년 7월 1일~2014년 8월 31일

* 괄호 안의 숫자는 구좌수입니다(가나다 순), 한구좌: 5,000원

후원하신 분 강병호/이한나(60), 강숙희(8), 강우경(40), 고종율(80), 김경덕(20), 김민기(8), 김상신(20), 김영식(40), 김영민(20), 김영희(6), 김은경(46), 김정(10), 김종철(10), 김주현(15), 김지형(4), 김치현(40), 김효영(30), 박성덕(40), 박영란(52), 손소학(2), 심라영(12), 유상실(20), 이미란(35), 이성현/임성주(12), 이태진(20), 장주동(40), 전해란(40), 조만제(12), 지봉현(28), 진양숙(8), 최광희/박효주(20), 최은진(정혜원)(20), 하희욱(62), 한규덕(38), 홍현주(80)

후원 교회 과천중앙교회(80), 남광교회(40), 남서울은혜교회(400), 대영교회(40), 동원교회(40), 사랑의교회(20), 새로남교회(40), 서현교회(40), 성광교회(60), 세대로교회(120), 송월교회(40), 원천교회(80), 수지수정교회(40), 양산성광교회(10), 예사랑교회(12), 주은혜교회(20), 충만한교회(12), 호산나교회(40)

후원 단체 ㈜에스코컨설턴트 김승렬(60)

• 문의: 070-4099-7710

후원 안내

온라인으로 후원금 보내기: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연락처를 꼭 말씀해주시고.

- 국민은행 767437-01-009907 파이디온선교회
-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우리은행 1005-402-245623 파이디온선교회
- 농협 301-0128-1734-11 파이디온선교회

자동 이체로 후원금 보내기:

매번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은행 간 자동 이체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예정하실 수 있습니다(타 은행일 경우 300원의 수수료 부과).

파이디온 소개

파이디온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온선교회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사역을 펴고 있습니다.

- ① 세계의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 ②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일꾼을 세웁니다.
- ③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 ④ 다음 세대를 세울 도구를 빚습니다(도서출판 디모데).
- ⑤ 다음 세대의 문화 속에 영원한 진리를 담습니다.

파이디온 기도 제목

커리큘럼 팀

1. 교재의 내용이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2. 교재 개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3. 새로 개편된 커리큘럼 팀의 사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좋은 교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자훈련 팀

1. 1기 전도사학교와 1기 목요교사 학교를 통해 다음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2. 신대원지부(서울장신, 총신, 합신) 하반기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며 다음세대를 향한 도전과 비전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3. 2015년 사역자훈련 팀 사역 계획에 지혜를 주셔서 많은 한국교회를 섬기고 영향력 있는 다음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VBS 팀

1. 2015년 여름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기를.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2. 함께 동역하는 강사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문화사역 팀

1. 하반기 진행되는 세미나(찬사모, 예배인도자 세미나)를 통해 다음세대 예배 인도자가 잘 훈련되고 세워지도록.
2. <나도 찬양할래요 3> 음반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과정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작업이 이어지도록.
3. 2015년도 사역 계획에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과 교사를 돕는 귀한 사역을 계획할 수 있도록.

청소년사역 팀

1. 하반기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기획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2. 2015년 VBS 주제를 위한 연구와 선정 과정에 필요한 지혜주시도록.
3. 함께 동역하는 청소년사역 팀 강사단의 사역에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캠프사역 팀

1. 신설 팀으로서 새로운 사역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지혜를 주시도록.
2. 기존에 진행해오던 어린이 캠프와 청소년 캠프 사역을 잘 정리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팀

1. 하반기 해외 지도자 훈련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현지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사역자로 잘 세워지도록.
2. 김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역 지부 사역이 더욱 확장 될 수 있도록, 지역 지부 사역자를 통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가 잘 훈련되도록.
3. 파이디온선교회가 다른 교회, 단체, 기관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로 확장되도록.

파이디온 뉴스

1. 지난 9월 파이디온선교회의 어린이 및 청소년 캠프 사역을 위한 '캠프사역 팀'이 신설되었고, 김정 목사가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2. 파이디온선교회 문화사역 팀에서 강사로 동역할 신입 강사를 모집합니다. 오디션은 오는 12월 4일(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이디온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 VBS 팀 박종인 전도사 10월 9일(부산 온천제일교회)
 - VBS 팀 광봉준 강도사 9월 27일(하남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며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도록 축복해주세요.
4. 출산
 - VBS 팀 심라영 전도사 9월 딸 노엘(태명)
 - VBS 팀 최형 목사 8월 8일 딸 최지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의 예쁜 딸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5. 목사 안수
 - 광봉준, 김만길, 김수연 강도사, 방신애 전도사
6. 강도사 인허
 - 서인원, 박종인 전도사

구독 안내

<비전트리>를 구독하기 원하신다면

파이디온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aidion.org에 로그인 후, 회보 신청란에 e-mail 혹은 우편 발송 선택

회보 후원금으로 파이디온 사역에 동참하여주십시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회보를 접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가슴에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0원_ 회보 후원금은 회보 제작에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문의: 070-4099-7710